

# 정해영 “후반기는 완벽하고 싶어...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전반기 2승 3패 22세이브...마지막 3경기 빼꽃  
 “자신한테 화 냈지만 상현이 형이 막아줘 고마워”  
 오늘 롯데전 후반기 스타트...“더 성장 하겠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정해영이 '초심'으로 후반기를 연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보낸 KIA 선수단은 22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순위싸움을 위한 보루, 마무리 정해영은 실패를 발판 삼아 더 완벽한 후반기를 그리고 있다.  
 정해영은 전반기 32경기에 나와 2.4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면서 2승 3패 22세이브를 수확했다. 지난해 KBO 최연소 30세이브 주인공이 됐던 정해영은 올 시즌에도 세이브를 쌓아가면서 LG 고우석(27개)에 이어 세이브 2위에 올라섰다.  
 전체적인 기록은 나쁘지 않았지만, 전반기 마지막 3경기 결과가 좋지 못했다.  
 정해영은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한화와의 홈경기에 모두 출격했고, 2개의 세이브를 추가했다. 하지만 김호영과 이우성의 '특급 수비'로 연달아 불륜세이브의 위기를 넘겼고, 10일에는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전상현이 2사 만루의 위기를 정리해주면서 팀은 한화전 스윙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정해영은 “기록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을 생각하면 아쉽다. 이겨내야 한다. 코치님,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면서 잘 이겨내겠다”며

“한화 마지막 경기 때는 자신한테 화도 많이 냈다. 상현이 형이 막아줘서 고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방심하면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투수들이 워낙 좋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됐다. 내 자신부터 강해져야 할 것 같다”고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돌아봤다.  
 “뭘 해도 안 되는 시기”를 보낸 정해영은 롯데와의 원정 3연전을 통해 테스트를 받는다.  
 정해영은 “스트라이크 날렸고 한 가운데 보고 던져도 원바운드로 가고, 공이 빠지고 뭘 해도 안되는 시기였다. 다행히 호영이 형, 우성이 형이 너무 고마운 수비를 해줬다. 상현이 형이 잘 막아줘서 그 시기를 온 좋게 넘어간 것 같은데, 후반기 시작하니 그 시기가 남아있는지 끝났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마무리 보직은 어찌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오늘도 반복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다. 또 야구라는 게 그런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잊고, 밸런스 찾으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로 데뷔 시즌부터 필승조로 활약한 정해영은 지난해에는 팀의 마무리로 자리했다. 하지만 정해영은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아직은 어린 고졸 3년 차 선수다.  
 정해영은 “혼자 생각 많이 하는 것 같다. 작년에는 멧모르고 했다. 멧 모를 때는 신나서 던졌는데

올해는 불륜세이브 등이 많이 두렵기도 하다. 야구는 잘 될 때는 계속 잘 되고 안 될 때는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아빠도 안 될 때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며 “공은 남이 던져줄 수 없고, 심판이 불인데 스트라이크라고 안 해주는 것이니까 내가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를 동기부여로 삼은 정해영에게 올스타전도 후반기 새로운 힘이 됐다. 정해영은 나눔 올스타 중간 투수 베이스 선수로 처음 ‘별들의 잔치’에 참가했다.  
 정해영은 “정말 재미있었다. 팬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긴장했다. KIA 선수단 입장할 때 팬들이 진짜 크게 함성을 질러주셨다.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잘해서 매년 나가고 싶다.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내년에 뽑아주시면 준비해가겠다”고 웃었다.  
 재충전 시간을 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정해영은 좋은 마무리를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해영은 “전반기 때 좋아졌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마지막 3경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부족하다. 더 성장해야 한다. 후반기에는 끝이 좋으면 좋겠다”며 “팀이 끝까지 잘 되려면 내가 잘해야 한다. 내 뒷만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후반기에는 불넷, 불륜세이브 신경 쓰면서 하겠다. 불넷만 안 주면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속 안타, 3타자 연속 안타 맞는 게 쉽지 않으니 불넷 주지 않으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집어넣으면 안 되고 세게 던지면서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정해영이 지난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올스타전 참가 이후 첫 훈련을 하는 모습.



20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아인컵 남자부 1차전 한국-중국전에서 고영준이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전서 A매치 데뷔만 4명...벤투호에 활기 더한다

김동준·조유민·고영준·강성진  
 동아시아인컵서 생애 첫 A매치  
 3대0 완승 이끌어 강인한 인상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인컵)에서 벤투호의 '새 얼굴'들이 데뷔전을 치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 동아시아인컵 1차전에서 상대 자책골과 권창훈, 조규성(이상 김천)의 골을 엮어 3-0으로 완승했다.  
 이번 대회는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아 손흥민(토트넘) 등 주축 해외파 선수들은 거의 합류하지 못했다. 대신 새로운 선수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한국 대표팀에선 4명이 생애 첫 A매치에 나섰다.

골키퍼 김동준(제주)과 수비수 조유민(대전)이 선발로 출전했고, 고영준(포항)과 강성진(서울)은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평소 선수 기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벤투 감독이지만, 23세 이하 선수들 위주로 팀을 구성한 '약체' 중국을 상대로는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했다.  
 그중에서도 고영준은 짧은 시간에 공격포인트까지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발탁된 고영준은 후반 21분 권창훈과 교체로 투입된 뒤 재빠르게 2선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후반 35분에는 조규성의 패시브를 도왔다. 황인범이 허프라인 부근에서 내준 패스를 고영준이 재차 찼고, 이를 조규성이 페널티 지역에서 마무리하며 매끄러운 공격이 완성됐다.  
 2001년생 22세 이하(U-22) 자원으로 올 시즌 포항 스틸러스에서 21경기(2골 2도움)를 소화하며 활약 중인 고영준은 벤투호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03년생으로는 처음 A대표팀에 뽑힌 공격수 강성진도 후반 28분 엄원상(울산)과 교체로 간절히 바라던 데뷔전을 치렀다.  
 최근 서울의 측면 공격을 이끄는 그는 이날도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아직 경험이 적은 어린 선수들이지만, 새로운 '젊은 피'의 등장은 대표팀에 활력을 더했다.  
 대표팀에 여러 차례 소집됐으나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던 김동준과 지난날 A매치 4연전을 앞두고 처음 발탁됐던 조유민도 마침내 기회를 얻었다.  
 이번 대회에 김민재(페네르바체)와 김영권(울산)이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벤투 감독은 권경원(감바 오사카)-조유민 센터백 조합을 내세웠다.  
 사실 중국이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몰아치면서 수비에 관해서는 평가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조유민은 후반 32분 고영준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연결하는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하며 풀타임을 소화했다.  
 /연합뉴스

## ‘女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종별선수권 2관왕

여자 일반부 단체전 이어 단식 우승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에이스 안세영(20·삼성생명·사진)이 모처럼 출전한 국내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광주체육 출신 안세영은 2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20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단식 결승전에서 팀 선배인 김가는(24·삼성생명)을 2-0(21-6 21-19)으로 꺾었다.  
 이로써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단체전 우승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안세영의 소속팀 삼성생명은 지난 17일 열린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화순군청을 3-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4월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천적' 천위페이(중국)를 꺾고 정상에 오르는 등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세영의 소속팀 삼성생명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단식과 단체전을 제외한 전 종목을 석권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날 열린 여자 복식 결승에서 김혜정-이유림(이상 삼성생명)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을 꺾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 송원대 야구부 전국대학야구 정상 도전

오늘 경희대와 결승전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야구부(감독 고천주·사진)가 전국대학야구 정상에 도전한다.  
 송원대는 22일 오전 10시 보은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경희대를 상대로 제77회 전국대학야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을 벌인다.  
 지난 1일 시작된 대회에서 송원대는 구미대, 부산과학기술대, 조선이공대, 용인예술과학대, 제주국제대와 함께 D조에서 16강에 도전했다.  
 5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한 송원대는 '다크호스' 경일대를 6-3으로 꺾으면서 8강에 진출했다. 이어 인하대와 8강 승부에서는 11-4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 티켓을 차지했다. 송원대는 준결승에서 만난 성균관대를 12-4로 제압하면서 결승

에 올라 패권을 다투게 됐다. 상대는 경희대다.  
 송원대는 투-타의 밸런스로 우승에 도전한다.  
 투수 정현수가 20.1이닝을 던지면서 2.25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수확했고, 윤성보는 10이닝을 1.80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았다. 타석에서는 최민준, 안환수, 박성언, 박준서, 김동휘, 김준겸이 '3할 타자'로 눈길을 끌고 있고, 특히 포수 김준겸은 2개의 홈런도 기록하고 있다.  
 송원대 고천주 감독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대학과 많은 훈련을 소화한 선수들의 투지, 코칭스태프의 체계적인 지도가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학교, 선수, 코칭스태프가 한마음으로 우승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